

폭염 안전사고 예방 ·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전주시, 무더위쉼터 운영 · 현장 근로자 유연근무 실시 · 온열질환자 관리 등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

전주시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 실시, 온열질환자 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는 폭염 집중 대응기간 중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대비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지역도 지난달 20일부터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마가 물러가고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달 24일부터는 폭염경보가 꾸준히 발표되는 등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각 부서별로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철저히 추

진해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대책은 △부서별 무더위쉼터 집중점검 △현장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 실시 △온열질환 응

급실 감시체계 운영 △버스승강장 내 냉방기(에어컨 등) 점검 △한옥마을 내 열염길 조성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날 초 폭염 집중 대응기간 중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대비사항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건축과와 도로과, 노인복지과, 버스정책과, 보건소, 한옥마을사업소 등 폭염 관련 16개 분야의 21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주요 폭염 대책에 대한 점검 및 보고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분야별 담당부서의 협조사항 공유도 이뤄졌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여름철 폭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전주시보건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했던 전주시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날부터 무료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65세 이상에서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40%는 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신경통과 함께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와 주민등록 초본 1부를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 시 1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악성종양·면역결핍자,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자와 항바이러스제 치료 대상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금지된다. 또 과거 대상포진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 지자체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대상포진 백신 수급난 중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계획량 전량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75% 예방접종율을 달성해 지난해 시장 운영 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튀르키예 드론축구 선수단, 맞춤형 진지훈련 위해 전주 찾아

캠틱종합기술원 방문 드론축구부 조립 · 정비 · 비행교육 등 훈련

전주시는 6일 튀르키예 드론축구 선수단 13명이 여름캠프 교육 등 맞춤형 진지훈련을 위해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예정 도시인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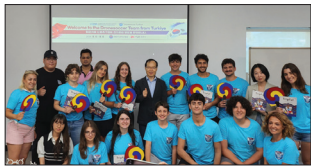
튀르키예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19개국 가입)의 회원국으로, 튀르키예 선수단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에도 참가해 뛰어난 드론축구 실력을 뽐낸 바 있다.

전주를 찾은 튀르키예 선수단은 (사)캠틱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축구에 대한 이론 교육과 드론축구부 조립 및 정비 교육을 통해 기본을 충실히 다졌다.

또한 드론축구 시뮬레이터 훈련과 드론축구부(Class40) 비행교육 등을 통해 드론 조종 기술 향상 및 팀워크를 강화 하는 등 바쁜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선수단은 1일차 진지훈련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한지공예체험, 한글비즈팔찌 만들기, 전통놀이와 같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는 등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한국 전통의 멋과 매력을 맘껏 만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튀르키예 드론축구 선수단이 전주에서 해외 진지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전주가 지난 2016년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보급해온



중주도시로, △2018년 대한드론축구협회(KDSA) △2023년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설립 및 국제드론축구대회 개최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구축 등 국내외 드론축구 기반 구축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부지에 드론

축구 전용경기장인 드론스포츠클럽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전주(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드론 기업전시관과 포럼, 전국드론축구대회, 홍보·체험관 등을 아우르는 '2024 전주 국제드론산업박람회'를 개최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굴솥 야사리 튀르키예 드론축구 선수단 감독은 "드론축구가 탄생한 중주도시 전주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여름캠프 교육과 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팀워크 강화로 내년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참가가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덕진의원소방대, 생수 무료나눔 봉사 펼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 의용소방대연합회장(강정석, 김선희)이 6일 전주덕진소방서 앞에서 폭염확대에 따른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생수무료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전주덕진의원소방대연합회는 6개대 154명이 조를 나눠 생수 300개를 무료 배부하고, 폭염취약시간(14시~17시)



에는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처(그늘막)까지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시작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선정 8개 기업에 인증서 전달

전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인 수소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전주시는 6일 비나텍(대표 성도경) 등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8개 기업에 예비수소전문기업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선정기업인 △비나텍(대표 성도경) △비나에프씨엘(대표 전희권) △(주)한국에너지기술단(대표 노영진) △(주)바이오랩(대표 서민식) △(주)넥스트에너지(대표 김성현) △(주)에스엔전자(대표 정준호) △레오닉스(유(대표 최동식) △(주)케이엠트론(대표 양승우)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 수소산업분야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수소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기업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술 도입·보호 △연구 장비 활용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표·CI 개발 △홍보·전시회 등 약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보건소,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안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역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624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교육시설 주출입구 등에 개정된 금연구역 내용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금연포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이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금연단속반 6명을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해 교육시설 주변을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전주지역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172건을 적발해 각각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담배 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